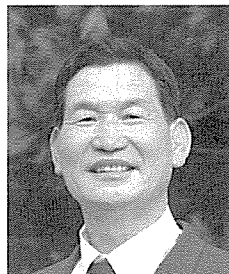


쓰레기와 洪水



환경인의 공간



권영국
(주)곤지암레저 환경기술인

그 번(今番) 태풍 홍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쓰레기가 하천(河川)으로 방류(放流)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무척 아파 글을 올리게 됐다.

쓰레기 발생과 처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관심(觀心)을 가지고 관리(管理)해야 할 중요한 과제(課題)이다.

매년(每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홍수로 인(因)하여 경험해 왔던바 아직도 지·하천(地·河川)에서 많은 량의 쓰레기가 유입(流入)되는 상황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반(反)하여 여름 장마철 때마다 왜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는가(?)

그것은 개인 또는 단체가 등산이나 낚시(釣魚)터에서 그리고 유원지에서 버리고 간 잔재(殘在)물건 반(半), 그 밖의 쓰레기들이 거의 홍수와 뒤엉켜 자연을 훼손시키고 인명과 재산, 질병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로 인재(人災)로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주민(시민)들이 의식 없이 쓰레기를 던져 버리거나 줍지 않고 방치(放置)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우리 생활에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

또한, 필자 자신도 '오·폐수 처리' 담당자로서 근무하면서도 '자연재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서며 각별히 준비를 하는데 특히 수질과 토양오염 그리고 지하수오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집중호우(集中豪雨)가 왜 올까?

그리고 우리는 왜 겁(怯)을 낼까?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왜냐하면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되돌아온다!

금번 여름철 대홍수가 비롯 남쪽 아니 중부지방까지 이어져 피해가 많았지만 걱정이 아닌 설마가 실제로 나에게 닥쳐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화(禍)를 당한다는 실례를 반증하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삼성오신(三省吾身)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오·폐수 및 슬러지를 그냥 방치한다면 그 검정물이 어디로 가겠는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경험이 가장 비싼 수업료라고 했던가!”

실감이 나는 내용이다.

“요람(搖籃)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공해(公害)와 함께 공존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환경오염 사범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가정 환경 개선

둘째, 회사 환경 개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환경개선이 글로벌 시대와 맞물려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더불어 언어교육 즉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환경도덕

교육 또한 우선을 두어야 한다.

지금 매년 발생되고 있는 여름철 대홍수에 따른 쓰레기 대란(大亂)은 진정 양심을 가지고 느껴본 부분이다.

우리가 반추(反芻)해 봐야 할 것을 무관심한 공해(公害)에 대한 결과는 질병(疾病)과 빈곤(貧困)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누가 지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쓰레기 지킴이’ 전문인으로서 실천을 위한 되새김 글을 표하고 싶다.

“사고(思考)는 행동(行動)을 지배(支配)하고, 행동(行動)은 습관(習慣)을, 습관은 성격(性格)을, 성격은 운명(運命)을 지배한다”는 것을… ◀